

#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 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 세미나 추진(案)

## [추진 배경]

원유, 가스등의 풍부한 자원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꾸준한 경제성장은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전통적인 에이즈, 말라리아 질환과 더불어 심혈관, 당뇨병, 고혈압등의 성인병 발병률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 제약업체의 아프리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IMS Health에 따르면 오는 2016년이 되면 아프리카의 제약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0년 이래 연 평균 9.6% CAGR에 기인하는 것임.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 제약 수요의 약 50%(약 100.7억 달러 규모)가 쏠려 있었으나, 최근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케냐등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 세분화되는 추세임.

(첨부 자료 참고)

위와 같은 아프리카 제약 수요의 꾸준한 확대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세분화는 국내 제약 기업에게는 신규 시장으로서 매력을 갖고 있음.

이에, 유니시스인터내셔널은 에너지절감 전략을 통한 기업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아프리카 제약시장 진출에 관한 교육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함.

## [세미나 주요 발표 내용]

1. 아프리카 제약 시장 현황
2. 동아프리카(EAC)제약 시장의 현황
3. 세계보건기구(WHO)등의 국제기구 아프리카 보건 정책
4. 현지화전략(Localization)을 통한 시장진출 방안
5. 다국적 제약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등

## [세미나 기대 효과]

1. 아프리카 제약시장/수요에 대한 이해 제고
2.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특성 및 동향 파악
3. WHO, WB등의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보건정책 이해를 통한 수요 발굴
4. 현지화전략 모델 개발 역량 구축
5. 타 제약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마케팅 기본 전략의 수립

## [강사 소개]

### 송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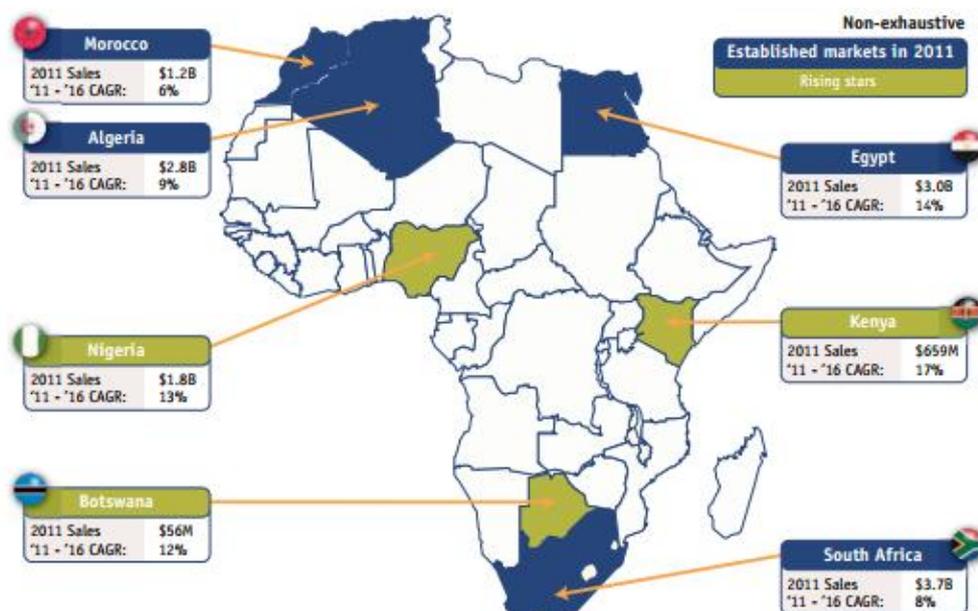
現 탄자니아연합대학교 객원 교수(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現 음빙가(Mbinga) 경제개발상임위원회 상임위원(탄자니아)

現 KGR FNB(탄자니아 현지 법인) 이사

## [첨부]- 출처: imshealth

FIGURE 3: IN ADDITION TO ESTABLISHED PHARMACEUTICAL MARKETS IN THE NORTHERN AND SOUTH PARTS OF AFRICA, THERE ARE RISING STARS IN SSA



Sources: IMS Health Market Prognosis, Sept 2012

In the West, Nigeria is the most populous country on the continent with ~160 million people and has enjoyed above average GDP growth for Africa since 2006. The country's pharmaceutical spending has been rising at a 16% CAGR and this is expected to continue at a slightly lower rate of 13% through 2016.<sup>20</sup> In 2008, the government launched the grow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as part of a commitment to ensure universal health coverage by 2015. Despite this positive step,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amount of effort needed to cover the intended population. While the goal is to cover the entire population through government revenues and tax contributions, current coverage is merely 6% of the population.<sup>21</sup> Additionally, while HIV and malaria are the leading causes of death, NCDs are rapidly emerging as major public health challenges, particularly in the urban slums which include over half of Nigeria's population.<sup>22</sup>

In the East, Kenya has committed to spending 15% of its national budget on healthcare amid plans to transform itself into a middle income nation by 2030.<sup>23</sup>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shaping the healthcare market and membership of the EAC trading bloc reducing regulatory hurdles to entry, Kenya is forecast to have a CAGR of 17% through 2016.<sup>24</sup> This reflects opportunities in both communicable diseases, such as malaria and HIV, and NCDs which are a growing challenge in the country. The rapid increase in diabetes, for example, has seen the launch of a major diabetes treatment and management pilot project sponsored by Novo Nordisk, as Kenya works to "strengthen [their health] systems to face this new threat of noncommunicable diseases."<sup>25</sup>